



불교미술 기초지식 총망라

문명대교수 '불교미술의 형식' 등 2권 펴내

교미학책 두권이 나왔다. 문명대교수(동국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문화재위원)가 불교미술강좌 시리즈 1·2권으로 펴낸 <한국불교미술의 형식>과 <한국불교미술사>가 그것.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은 문명대교수가 지난 80년 펴낸 <불교미술개론>을 27년간에 대폭 수정 보완한 책이다. 불교미술의 개론에서 불교미술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 설명하고 불사(佛舍), 불탑(佛塔), 불화(佛畵), 불구(佛具) 등으로 분류해 다시 이 네 부분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각 분야마다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다. 한국불교미술의 분야별 형식 및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정리했으며 2백여장의 풍부한 도면과 사진을 함께 묶었다. 특히 '불상의 도상형식'에서는

분야·주제별 양식변천사 정리
국내외 주요작품 도면·사진 등 수록

32장과 80종호, 수인(手印) 계인(契印) 등 불상의 각 모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신행에도 도움을 준다. <한국불교미술사>는 불교미술의 기원에서부터 한국 불교미술의 전개와 발전까지 분야별·시대별로 살펴보는 '양식

사'이다. 조각이나 회화 건축 공예별로 제각기 그 흐름을 살펴보고 그 흐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제별로도 정리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불교미술사 가운데 중요한 결과들은 따로 한 주제를 부각시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고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원류인 인도와 서역, 중국의 불교미술사도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국내외 주요작품을 총망라한 4백여장의 사진자료가 미술사 이해에 도움을 준다.

저자 문명대교수는 "한국의 불교미술사는 한국미술사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미술사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펴낸 이 책이 전공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한국의 불교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나와 경전



묘법연화경



이영자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법화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이 1957년경이니까 40여년째 전일이다. 그무렵 불교사상강의를 듣기 위해 대각사의 청년단체모임인 대각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때 모임의 부회장이던 황대법선 보살님께서 <법화경>에는 굉장한 부처님세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때는 요즘처럼 경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뿐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할 수

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한 것이 법화신앙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기존의 소승불교인이라고 하는 성문이나 연각을 알보는 일없이 모두 대승보살로 인도하려는 의지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말하자면 일체종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보다는 일체종생이 모두 다 성불한다 라는 초대승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는 대전제를 보여 주는 것이 이 경전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고 수많은 보살의 명호를 <법화경>에 서 읽을 수 있다.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것은 종생의 수가 무수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충만하시다. 과거세상에 또 미래세상에 그리고 현재에도 빛으로 충만하다. <법화경>을 읽으면 실로 장대한 드라마를 연상케 된다. 부처님은 세상 안팎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종생의 마음속에 충만

'누구나 다 부처님' 초대승적 사상 담겨 수많은 불보살 출현... 장대한 드라마

이 경전을 읽고 법화신앙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에 나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냥 종교적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지닌 채 나의 서가 가장 끝자리에 <법화경>을 모셔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법화경>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천태와 법화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근래 십여년간의 일이다.

<법화경>의 본 경명은 <삼드 달마 폰다리카 수트라>이다. 바른 법을 흰 연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법을 묘법(妙法)이라고 번역했다. 흰 연꽃은 진흙탕인 연못에서 핀다. 오염된 현실에서 올바른 부처님법을 실현하는 대승불교의 실천자를 흰 연꽃으로 상징한 것이다.

<법화경>은 초기 대승불교경전을 대표하고 있다. 이 경을 보면 초기대승불교운동이 얼마나 격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초기 대승불교는 재가불교신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시대를 거처함에 따라 출가와 재가의 구별없이 혼연한 사부대중이 참여하게 되면서 대승불교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이 가운데서 새로운 경전의 결집을 지향하는 그룹 가운데 혁신

한 생명이었다. 이 생명의 부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법화회'가 사찰에서 열렸고, 수많은 고승들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연구하여 많은 영험담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이 경을 서사(書寫)하고 마음에 새겨 읽고 외우며 주변인들에게 설행해 주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이들을 '법사'라고 하고, 이 설행하는 분들을 '여래의 사도'라고 하였다.

여래의 사도는 여래의 법에 들어가 여래의 뜻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해 법을 설행한다. 여래의 방은 자비심이다. 모든 온유하게 모아내는 마음이고, 여래의 자리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비온 마음자리이다.

<법화경>은 중국에서는 천태종의 주요 소의경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삼론종 불상종 열반종 등 모든 조사들이 소중히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법화신앙이 큰 주류의 하나로서 <법화경> 연구가 크게 성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좀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인의 신앙관의 지평을 흐르고 있는 큰 맥은 법화신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원효학회 창립

동국·뉴욕주립대... 5월 30일 국제세미나

원효저술의 영역화, 국제세미나 개최 등 원효사상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원효학회(공공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셀리 스트럼 케니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총장)가 3월 17일 창립했다.

창립 동국대가 미국의 뉴욕주립대와 협약을 거쳐 창립한 국제원효학회는 △원효학 연구 방법론 제정 △원효학 입문서와 대개 발간 △원효사상의 비교사상적 연구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채택하고 학회 첫 사업으로 원효저술 영역사업과 창립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원효저술 영역사업'은 <한국불교전서 제1권>(동국대 출판부 편)을 저본으로 번역작업을 벌여 2000년까지 영역본을 출간할 계획. 국제원효학회는 이번 영역작업을 원효사상관련 출판물까지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월 30일 '원효저술 영역사업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회담이나 김영태교수(동국대)의 '원효사상체계'를 비롯해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의 '원효사상의 논리구조' R·버스웰교수(UCLA)의 '원효 영역상의 단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기·중도사상 인권운동 뿌리"

연기영 교수 논문 '불교전통과 인권...'

동아시아 불교국 사회개혁운동 분석

동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불교운동' '사회개혁운동' 등 인권운동의 사상적 뿌리는 연기(緣起)와 중도(中道)에서 찾을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는 <사상(계간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 '불교전통과 인권의 문제'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 서양의 인권사상에 비해 동아시아의 불교국은 연기와 중도를 통해 공동체적 인권사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교수는 "카스트제도를 거부한 신타르타가 깨달은 연기와 중도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자비정신과 생명존중으로 발전해 인도 스리랑카 태국 한국 등지에서 확산된 비폭력·민주·개혁 등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下 唯我獨尊) 그 자체가 바로 인권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연교수에 따르면 아랍사 정신에서 비롯된 잔디(인도)의 불복 아시아의 불교국은 연기와 중도를 통해 공동체적 인권사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기영 교수

"조선초 불교 사회변혁 수동적"

신규탁교수 '불교와 유가의 윤리충돌' 발표

함허득통 '현정론'서 불교윤리관 응호

조선이 개국됐을 때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불교가 새왕조건설에 부응하는 이념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규탁교수(연세대 불교철학)가 연세대 불설국학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함허득통에 나타난 불교와 유가의 윤리충돌'에서 <현정론>에 나타난 불교와 유가의 논쟁을 통해 "불교는 유가의 등장에 논리적 사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함허득통의 반론은 유교의 윤리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불교를 끼워 맞추려



신규탁 교수

19일 백양사 참사참람결사 세미나

고흥불림 백양사(주지 지선)가 오는 19일 '참사참람결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용삼의 '참사참람 서원'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는 전재성교수(동국대)의 '경전에서 본 참사참람'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의 '선에서 본 참사참람' 김지경박사(前 정신문화연구원)의 '현대사회에서 참사참람의 수행방향' 등이 발표되고 최성열교수(조선대) 임수스님(운문선원) 김용관프로듀서(KBS)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0685)92-7502

삼학원 '구사론' 등 강좌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부설 원전전문학원 삼학원이 '97년도 제1기 강좌를 개설했다. 삼학원이 이번에 개설한 강좌는 <구사론> <유식삼십론> <화정론> 등이다.

매주 금요일(오후 6시)에 개설되는 <구사론>의 강사는 이종철교수(정신문화연구원), 이지수교수(동국대)와 김성철교수(동국대)가 각각 강의하는 <유식삼십론>과 <화정론>은 토요일(오후 4시)에 격주 개설된다. (02)765-9602

학술단신

지리산 참솔 (松葉汁)

에로부터 소나무는 千年을 산다하여 松壽千年이라 했으며 神仙食으로 손님들께서 많이 드셨던 仙食이며,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께서도 생전에 산수가 수려한 곳의 솔잎을 드셨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에 솔잎이 각종 순환기 계통은 물론 질병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솔잎즙은 송엽(70%)을 영지, 대추, 감초, 검정콩과 배합 농축한 자연식품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松葉汁은 : 각종 스트레스와 과다한 흡연, 은주로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신 분, 손발이 저리고 땀이 뻑뻑한 경험을 하신 분, 친식 및 잇몸질환으로 인한 구취로 고생하시는 분,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고혈압, 중풍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머리를 맑게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좋습니다.

지리산 영농조합법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정직과 지존심을 걸고 지리산자락 하동군 창정지역 할토 명에서 葉를 들뜬 먹고 자란 참솔을 소개 하오니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1日 2-3회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제조 코리안헬스

서울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3 (경순BD401호) 공상검합장 (02)247-4667/8 FAX (02)213-3984 B.B. 015-456-8930

우리말 팔리어사전

감수 : 원의범
편저 : 전재성

전 1350페이지 문법집포함 완간

판매처 : 경서원, 여시아문 (기타 취급점 연락바람)

한국불교대학 출판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전화 : (0434)32-0108~9 FAX(0434)534-3950

재가불자전문 수행도량

- ◆ 이용안내 : 각 선학단체들의 수련법회, 개인수행, 신도수련 법회 일반수행인등,
- ◆ 편의시설 : 도서관, 세미나실, 강의실, 명상실겸 대웅주소
- ◆ 특 징 : 산세수려하고 소박한 고로쇠나무의 자생지이며 최소경비의 生居鐵川の古地

두타산 심신수련마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전화 : (0434)32-0108~9 FAX(0434)534-3950

부처님오신날 단청문양 현수막 보급

귀의 삼보하우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 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치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단청 디자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 서울·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 90cm×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사
■크기/90cm×6m ■가격/40,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사
■크기/90cm×8m ■가격/50,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사
■크기/90cm×10m ■가격/60,000원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수동식·기계식)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
1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 (02)738-8682

합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